

5장 성경

?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며, 예수와 사도들도 구약을 단어 하나까지 신적 권위로 대했다. 교회는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권위를 지닌 책들을 승인했을 뿐이다. 기계적 견해는 인간 저자를 무시하고, 동력적 견해는 영감을 종교적 감흥으로 축소한다. 바빙크는 성령이 저자의 개성과 연구를 모두 쓰시는 '유기적 영감'을 말씀의 성육신에 빗대어 제시한다. 그 영감은 기록 전체에 미치며, 성경은 학문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지혜를 주되 삶 전체에 권위를 가진다.

용어 먼저

영감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
유기적 영감	성령이 저자의 성품·은사·연구를 그대로 사용해 기록하게 하심
기계적 영감	저자를 받아쓰는 붓처럼 보고 인간적 요소를 무시하는 견해
동력적 영감	영감을 저자의 종교적 감흥 정도로 보는 근대의 견해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권위 있는 책들의 목록
완전 영감	성경의 중심뿐 아니라 주변 부분까지 영감이 미친다는 뜻
로고스	'말씀'이란 뜻으로, 계시자이자 계시 내용이신 그리스도

구조도 · 영감 이해 세 가지 비교

견해	성령의 역할	인간 저자	평가
기계적 영감	단어까지 받아쓰심	붓·필경사	인간 요소 무시
동력적 영감	종교적 감흥 일으킴	사실상 저자	말씀 계시 부정
유기적 영감	개성·연구 사용	온전히 자기 자신	신적이며 인간적

핵심 주장

1. 구약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구별했다.
2. 예수와 사도들은 구약을 점 하나까지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다.
3.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도 거부할 수 없다.
4. 교회는 정경을 만들지 않고, 그 자체로 권위 있는 책들을 승인했을 뿐이다.
5. 영감은 기록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사상과 단어, 단어와 문자를 떼어낼 수 없다.
6. 성경은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셔서' 정경이다.
7. 성경 비판의 뿌리에는 마음의 적대감이 있으므로 겸손한 신앙의 투쟁이 필요하다.
8. 성경은 일상 경험의 언어로 구원의 지혜를 주되 삶 모든 영역에 권위를 가진다.

성경 근거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다
벧후 1:21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했다
마 5:18	성경 권위는 점 하나까지 미친다
마 1:22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는 도구다
요 1:14	말씀이 육신 되듯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
고후 10:5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투쟁
딤후 3:15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오해 → 바른 이해

× 교회가 정경을 결정해 성경에 권위를 주었다	✓ 교회는 이미 권위 있는 책을 승인했을 뿐이다
× 성령이 받아쓰게 했으니 인간 저자 흔적은 없다	✓ 성령은 저자의 개성·문체·연구를 그대로 사용하셨다
× 교리만 영감되고 역사·지리는 오류 가능	✓ 성경에서 교리와 역사는 얽혀 있어 나눌 수 없다
× 모든 난제가 풀린 뒤에 성경을 믿겠다	✓ 그렇게는 신앙에 못 이른다. 학문도 믿음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성령이 사람을 통해 쓰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자 인간의 글이다”

💬 나는 성경을 판단하는가,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두는가?

💬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 나는 믿음과 겸손으로 씨름하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